

치유의 은사

염기석(목사, 충북 충주 동락교회)

일반적으로 육체적 질병의 치유를 말할 때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게 마련이다.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데 어떤 믿음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가? 병 낫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치유 받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질 않는가? 흔히 기도 받을 때는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의약(醫藥)과는 어떤 관계일까? 치유 받고도 왜 재발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이 왜 고치시는가? 등이 일반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 갖는 질문들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육체적 질병의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다.

올해부터 치유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처음과 두 번째 글은 치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서론적인 글이었다. 처음 글에서 치유는 질병의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것이 치유이다 라고 썼다. 지난 호의 글에서는 치유를 네 가지 유형으로 즉 질병에 걸림으로 치유 받는 유형, 질병이 낫질 않음으로 인해 치유 받는 유형, 질병이 나옴으로 치유 받는 유형, 병이 낫고도 치유 받지 못한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호부터는 본격적으로 치유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본인

의 전공이 육체적 질병의 치유이므로 앞으로는 육체적 질병의 치유에 대한 위의 질문들을 하나씩 써나가려고 한다.

치유의 은사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내적 치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영적 치유에만 전력을 다한다. 육체적 질병의 치유는 거의 포기된 상태이다. 그것은 예전에 비해 아주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병에 걸려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간편하고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해도 잘 낫질 않을 뿐 아니라 치유를 받으려면 치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약 시대는 물론 초대교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졌던 질병의 치유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능을 포기하는가? 믿고 치유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다.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능력이다. 치유는 믿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치유의 은사는 특정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반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별 은사

치유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치유 은사(병 고치는 은사 것이다. Χάρισματα ἰαμάτων: gifts of healings)는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같이 능력의 은사로 분류된다. 치유의 은사에 대해 와그너(Peter C. Wagner)는 말하기를 “병 고침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소수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환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병 고치는 은사를 요즘은 치유의 은사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신유의 은사라고 불렀다. 사실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치유나 신유라는 용어나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신유는 Divine heal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신적 치유’의 준말로 신유라고 한 것이다.

일반 은사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역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라고 하셨다. 이는 믿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치유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약 5:14)라고 하였다. 여기서 병든 자가 초청하는 ‘교회의 장로’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책을 가진 자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치유의 특별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다.

치유의 은사가 일반 은사인가, 아니면 특별 은사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손으로 그린다. 그러나 발이나 입으로도 그릴 수 있다(실제로 입이나 발로 그림을 그리는 장애인들이 있다.). 그렇지만 발이나 입으로 그릴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손으로 그린 것만 못하다. 치유의 은사도 그런 것이다.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정도의 차이)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

치유 은사 없이 병 고친 예

필자보다 세 살 위인 작은 누님이 생 후 18개월 때부터 오른쪽 팔에 골수염을 앓았었다. 그 후 중학교 1학년까지 15년 간 많은 고생을 하였다. 원주기독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도 받았으나 제대로 낫질 앓았다. 뼈에서 생긴 고름이 살을 뚫고 나와 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염증으로 인한 열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다. 그러던 중 중학교 1학년 때 치유 사역을 하시는 지금은 작고하신 손병희 권사님이란 분에게 안수를 받기 시작했다. 약 한 달 정도 기도를 받았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거의 완쾌된 듯 했다. 그러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마다 다시 재발하곤 하였다.

어머니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날마다 새벽기도회를 다녀오신 후, 잠든 딸의 아픈 팔을 잡고 상처 부위에 침을 발라가며 기도하셨다. 또한 가족들은 저녁마다 함께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누님의 팔이 정말로 나았다. 그 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나았다. 그 후 골수염으로는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어머니는 치유

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딸의 병을 고치셨다. 이처럼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은사이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누구나 소 뒷걸음질치다 쥐 잡듯이 기도해서 병 고친 체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의 차이점과 공통점

치유의 은사가 특별 은사이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반 은사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가? 물론 구별된다. 필자의 체험을 보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실제로 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의 몸에서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 자신의 몸에서 나간 능력이 상대를 치유하고 있음을 안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이다. 상대가 치유의 능력을 거부하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도 알 수 있다. 예수께서도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 받을 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다. 그러나 일반은사로써의 치유는 그렇지 않다. 왜 치유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나왔다는 정도이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으로 행하는 치유의 은사와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는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은 병이 고쳐진다는 것이다. 치유의 특별 은사가 없어도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를 말한다. 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누구든지 치유 받을 수 있다. 비록 그 치유가 병이 낫지 않는 치유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치유 받는다(지난 호에 게재한 '치유의 4가지 유형' 참조).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붙잡히 여기사,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사 받아 병 고치려 하지 말고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

치유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가?

치유의 은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가? 요즘 교회 성장을 위해 치유의 은사를 받고자 치유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필자는 치유 사역을 하는 기도원 집회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및 예언 세미나 등에 여러 차례 참석을 하였었다. 특히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중 한 곳에는 수천 명의 목회자가 몰려들어 크게 놀랐다. 그들 중 대부분이 치유의 능력을 받아 교회 성장을 이루어 보려는 의도에서 참석하였고, 주최측에서도 그렇게 선전하고 세미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요즘 교회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개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 교회 성장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치유의 은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교회 성장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성장을 동의어로 보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시키고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자신들이 무얼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다. 치유의 은사는 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바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 주시나니 …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고전 12:8-11)라고 분명히 말한다.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

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은사를 받게 하거나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은사이지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금식해가며 사모해도 본인이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하고 궁금해하지 말라. 그리고 답답해하지도 말라. 본래 은사는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참고, 고전 12장).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 은사이다.

은사 체험

필자는 1989년 6월부터 목회를 시작하였다. 1996년 5월말에 당시 시무하고 있던 교회에서 일종의 신유집회의 성격을 가진 부흥집회를 하였다. 은혜롭게 집회를 마친 후에 교인들이 필자에게 안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별 생각 없이 안수를 해 주었는데 그때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교인들은 좋아했지만 본인은 매우 당혹했다. 왜냐하면 흔히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치유는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황당하기까지 하였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중 고등학교 시절에 신비한 체험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했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비이성적인 체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지속하지 않았다.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 이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에 진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목회를 시작한 후에도 체험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

인 성숙을 위한 체험이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체험은 아니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당황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때부터 약 6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서 밤낮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자체 집회를 했었다. 교인들 중 거의 대부분이 고침을 받았다. 하지만 치유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게 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관련 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치유 사역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기(氣)나 '단(丹)을 하는 사람도 만나보았으나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 1998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원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은사자들은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감동이 있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을 위한 은사이므로 기쁨으로 은사를 받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은사들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치유의 은사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좋고 준비된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된다. 몸의 변화가 오고 능력이 나타날 때면 몸에 미열이 나면서 마치 몸살 걸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집회를 하고 나면 뜨거워진 몸이 식질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 또 자신의 몸 속에 있는 병도 일순간에 없어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동반하게 된다. 물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받으며 그들의 병이 나을 때, 그들이 나왔다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면 마치 내가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해 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당황해 할 때가 훨씬 많다.

예언이나 투시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비슷하다. 자신의 은사에 대해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과거나 미래를 안다는 것은 생각만큼 유쾌하지 않다. 아니 그 정반대이다. 한 가지 은사가 개발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두루 은사가 열린다. 남들 앞에서 성자처럼 행세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서 구역질이 난다. 그 구역질의 강도는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함을 이해 바란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내면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의 고민은 괴로움을 넘어서 불쌍하기까지 하다. 왜 은사자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치유의 은사를 비롯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원한다고 주시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역시 내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는 예수의 말씀처럼 믿고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왕상 3:10) 주실 것이다.

은사의 전이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수된 경우가 성서에 나온다(왕하 2:9-10, 15). 이러한 관계를 오늘날 캐트린 쿨만과 베니 힌에게서도 볼 수 있다. 치유 사역자들은 이를 ‘묻어온다’, 또는 ‘은사가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능력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전이된다는 뜻이다.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은 아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하다.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김미근 여집사는 수지침을 배워 침을 잘 놓는 분이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필자가 한복을 입고 나타나 마치 영화 ‘이티’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내밀더라는 것이다. 그때 집사님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끝이 닿았고 그때 전류

같은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부터 팔을 통하여 온 몸으로 퍼져 가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구든지 사람의 손을 만져보기만 해도 어디에 병이 걸렸는지, 그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맞히느냐고 물어보면 손을 만지면 손의 혈 자리 중 안 좋은 곳은 차갑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리에 침을 놓고 뜸을 뜨면 병이 잘 낫는다. 필자와 손이 맞닿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생긴 능력이다. 그렇다고 필자의 능력으로 그러한 은사가 생겨났다고 보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자를 통하여 그에게 전해진 것뿐이다. 따라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에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의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❷